

잘났어,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봄이 빠르게 변한다. 이미 개나리가 만개하였고, 벚꽃과 목련화가 피었다 진다. 페르시아 시인 사아디가 쓴 <화원 : 루리스탄>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들이 현자에게 묻기를 ‘신이 창조한 온갖 이름난 나무들 가운데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삼나무를 빼고는 그 어느 나무도 <자유의 나무>라고 불리우지 않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자가 대답하기를 ‘나무란 저 나뭇대로의 열매와 저마다의 철을 가지고 있어 제철에는 싱싱한 꽃을 피우나 철이 지나면 마르고 시드는도다. 하지만 삼나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항상 싱싱하느니라. 그러니 그대들도 덧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대가 대추나무처럼 가진게 많으면 나누어 주고, 가진 것이 없거든 삼나무처럼 자유인이 될지어다.” 그래서인지 어느 시인은 눈처럼 아름다운 백련화의 지는 모습을 보고 앞가슴 풀어헤친 술집 작부와 같다고 하대했나.

며칠전 어느 카톡 지인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쓴 <이런 사람이 좋다>라는 글을 보내왔다. 영성 지도자로 신부님은 많은 사람들의 영성을 일깨웠다. 나는 그분의 글을 좋아한다.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 불가능 속에서도 한줄기 빛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좋다. / 다른 사람을 위해 호탕하게 웃길줄 아는 사람이 좋고 /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누릴줄 아는 사람이 좋고 /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기자신을 지킬줄 아는 사람이 좋다. / 노래를 잘 하지 못해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사람이 좋다. / 철따라 자연을 벗 삼아 여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 손수 커피 한잔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좋다. /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 하루 일을 시작하기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 하루 일을 마치고 뒤돌아 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좋다. /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 외모 보다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좋다. /

친구의 잘못을 충고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고 / 새벽 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좋다. /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좋다. / 항상 겸손하여 인사성이 바른 사람이 좋고 / 춥다고 솔직하게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고 /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

나는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글을 보여 주면서 “나우엔 신부님은 신기(神氣)가 내리셨나, 지구 반대편에 사는 나에 대해 어떻게 요로콤 잘 아셨지? 그것도 미리 예언이나 하시듯이 나를 정확하게 콕 집어 말씀하셨네.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나네, 바로 나! 틀린 문장이 하나도 없네. 그치?” 그러면서 아내의 강제적 동의를 구했다. 아내가 한참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한 말씀 하신다. “잘났어, 정말!!”.

‘자화자찬(自畫自讚)도 이정도면 중병인가 하노라’의 함축된 의미인가. <자화자찬>과 <자포자기>의 공통점은 본인 스스로 만들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왕이면 자포자기 보다 자화자찬이 낫지 않은가. 요즘처럼 경기는 장기불황이다 못해 체념상태고,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머리 풀어헤친 미친 여자나 술주정뱅이 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누가 나를 칭찬하겠는가?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현대인은 각자 제 살기에도 바쁘다.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영혼없는 울림일 수 있다. 진정성이 결여된 시기와 질투일 수 있다. 훗날 “잘난체 까불 때 알아봤다.”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는 그고 나는 나다. 나라도 내 스스로를 홀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칭찬해야 한다.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살아야 한다. 나만이 나를 사랑 할 수 있다. <자화자찬>도 내 스스로만 인정하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

자화자찬은 상대방에게 말로 하는 것이고, 자신감은 상대방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자신감>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자기 최면>이 필요하다. “난 잘 될거야. 난 잘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그분은 항상 내 편이야. 그분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잘 살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등등 그분의 뜻에 맞는 나만의 주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간구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분께 간구할 때도 <긍정적 확신>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분께 “저를 사랑하시죠?”와 “저를 사랑하시나요?”와 “저를 사랑하시는기는 하는가요?”라는 질문은 천양지차다. 그분께 확신에 찬, 강한 어조로 구해야 한다. 구하는 자가 긴가, 민가 하면 답하시는 분도 헛갈리신다.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데 무슨 체면이 있겠는가. 그분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내 자신에게라도 강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뇌시켜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이다. 누군가 나에게 <잘났어, 정말!>이라고 말하면 <그래, 나는 잘났다. 잘났고 말고, 암!> 그렇게 대답해 주자. 단, 내 마음 속으로만!! 제발...